

다산학 48호 (2026.6) | 309~344

다산학술문화재단 소장 『마과회통』 필사본의 서지적 특징과 내용 연구

박훈평 | 동신대학교 한의예과 조교수

목차

- 머리말
- 재단본의 형태서지와 인용 문헌
- 재단본의 목차와 내용
- 재단본 계열의 기타 필사본
- 맺음말

1. 머리말

『마과회통麻科會通』은 정약용丁若鏞이 마진麻疹, 즉 홍역紅疫과 그 유사 질환에 대하여 저술한 전문의서이다. 이 책에 대하여 한국 의학사醫史學者 미키 사카에三木榮는 “마진 전문서이지만 조선 후기 최고봉에 이른 명저名著이다.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탁월한 서적”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¹⁾ 『마과회통』은 미키 사카에 뿐 아니라 여러 한국 의학사 연구자들에 의하여 주목을 받았다. 서봉덕은 『마과회통』에 드러난 정약용의 의학사상을 분석하여, “조선 마진학의 총화이자 결정체”라고 평가하였다.²⁾ 다만 그는 다산이 기존의 의학 이론을 혁신하기 보다는 제대로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보았다.³⁾ 근래 오재근은 『마과회통』과 같은 시기에 나왔던 다른 마진 전문서와 비교하여, 유학자로서의 관점이 반영되었음을 주장하였고,⁴⁾ 김호는 다산이 마진과 같은 역병을 이겨내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돌봄을 제시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다고 보았다.⁵⁾ 신동원은 『마과회통』에 대해 평가기를 “다산 또는 그의 시대가 부딪친 전염병 방역 문제에서 실천과 구상을, 의학자로서, 관료로서, 궁극적으로 경세가로서, 자신의 전체 사상과 관련시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⁶⁾

1) 미키 사카에 저, 오준호 역, 『조선의 서지』, 문진, 2022, 381쪽.

2) 서봉덕, 「마과회통의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93-94쪽.

3) 서봉덕, 「마과회통 오견편에 대한 제문제」, 『한국의사학회지』 21(2), 한국의사학회, 2008, 122쪽.

4) 오재근, 「마진방에서 마과회통으로 - 정약용의 마진 의서 저술 과정」, 『다산학』 40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22, 99-156쪽.

5) 김호, 「마과회통의 원경, 보식의 정치」, 『다산학』 40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22, 57-98쪽.

6) 신동원, 「조선 후기 전염병에 대한 정약용의 대응 방식」, 『다산학』 40호, 다산학술문화재단,

그러다 최근 필자가 구입한 『마과회통』 필사본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구성과 내용에 있어 기존에 알려진 필사본 계열과 달랐다. 이후 조사를 통해 필자 소장본이 다산학술문화재단 소장본(이하 재단본으로 약칭)과 같은 계열이고, 재단본이 이러한 계열의 선본임을 알았다. 김대원은 재단에서 간행한 『마과회통』 교감표점본(이하 정본定本으로 약칭)의 해제에서 재단본의 특징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하였다.⁷⁾ 이후 필자는 재단의 허락을 받아 재단본을 직접 열람할 기회를 얻었고,⁸⁾ 재단본 외에도 같은 계열의 필사본이 더 있음을 알게 되었다. 기존에 『마과회통』 연구는 정본을 텍스트 삼아서 이루어져왔으며, 재단본 계열의 필사본의 존재는 알려진 바 있으나,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었다.⁹⁾

조성율에 따르면 정약용은 『마과회통』 편찬을 위하여 1796년(정조 22) 3월 말에 이미 자료 수집을 하고 있었고, 1797년 겨울에 12권의 초고본을 완성하였다. 이후 수정과 보완 작업을 계속하여, 1798년 10월에 서문을 남겼다. 서문을 남겼다는 것은 증보 작업이 일단락되었음을 말한다. 이후로도 『마과회통』은 계속적으로 증보가 이루어졌다. 1800년(정조 24) 1월, 박제가朴齊家가 정약용의 집을 찾아왔다가 『마과회통』을 보고, 중

2022, 7~56쪽.

7) 김대원은 재단본에만 있는 다산가의 마진 치험 기록인 「진안일표彥案日表」 등은 가치가 있다고 보면서도, 재단본 자체는 원본 그대로를 필사한 것이 아니고, 필사자가 임의로 임상 서적 목적으로 편집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정본 여유당전서 34』,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19~22쪽. 정본은 신조선사 간행본과 한국은행본을 저본으로 하여 필사본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교감본이다. 신조선사 간행본은 최초의 『마과회통』 간행본으로 1938년 2월 『여유당전서』의 제7집 1책으로 신연환자본으로 간행되었다.

8) 2026년 1월 27일, 필자가 서울 다산학술문화재단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9) 오재근은 재단본에만 실린 「진안일표彥案日表」를 논문 부록으로 실어 소개한 바 있다. 오재근, 앞의 논문, 2022, 135, 144~146쪽.

두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어 내용을 보완하게 된다.¹⁰⁾ 그렇다면 『마과회통』 필사본 종류는 1797년(정조 23)의 초고본(12권본), 1798년 증보본, 1800년 이후 증보본, 이렇게 적어도 3가지가 있게 된다. 현존 정본은 6권본의 형태이고, 종두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었으므로, 1800년 이후의 증보본 계열이다.

본고를 통하여 재단 소장 『마과회통』 필사본의 서지적 특징과 내용 등을 기존에 잘 알려진 정본과 비교하여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하여 『마과회통』에 대한 기존 평가와 논의를 발전시키려 한다. 이는 실전된 『마과회통』 초고본을 재구성하고, 다산의 저술 의도를 이해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재단본의 형태 서지와 인용 문헌

재단본은 정창욱 丁昌昱의 소장본을 나주정씨대종회에서 구입하여 재단에 소장 중인 자료이다.¹¹⁾ 책 크기가 23.1×15.8cm이며 14권 4책의 필사본이다. 각 책은 표제가 ‘마과회통麻科會通’이다. 책별로 표지에는 ‘춘하추동春夏秋冬’으로[사진1], 속지에는 책별로 ‘원형이정元亨利貞’으로

10) 「답만계답蔓溪(제3서)」, 『사암선생연보侯菴先生年譜』, 『마과회통』 「서序」 「종두설種痘說」의 기록에 의한다. 다산의 현손인 정규영 丁奎英이 저술한 『사암선생연보』의 1797년 기록에 “겨울에 『마과회통』이 완성되었다. 『마과회통』은 홍역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처방을 기록한 책이다. 당시 공의 여러 아들들이 연이어 홍역으로 요절을 하였으므로 공이 처방을 수집하여 이 책을 완성하였으니, 모두 12권이다.”라고 하였다. 다산이 1822년 쓴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을 보면 “『마과회통』 12권”이라 하였다. 조성을, 『연보로 본 다산 정약용』, 지식산업사, 2016, 389, 428-429, 446, 474쪽; 정규영 저, 송재소 역, 『다산의 한평생』, 창비, 2014, 118, 242쪽.

11) 재단은 2007년 1월 22일, 2월 28일에 걸쳐 재단본의 소장 경위와 형태 등을 조사하여 기록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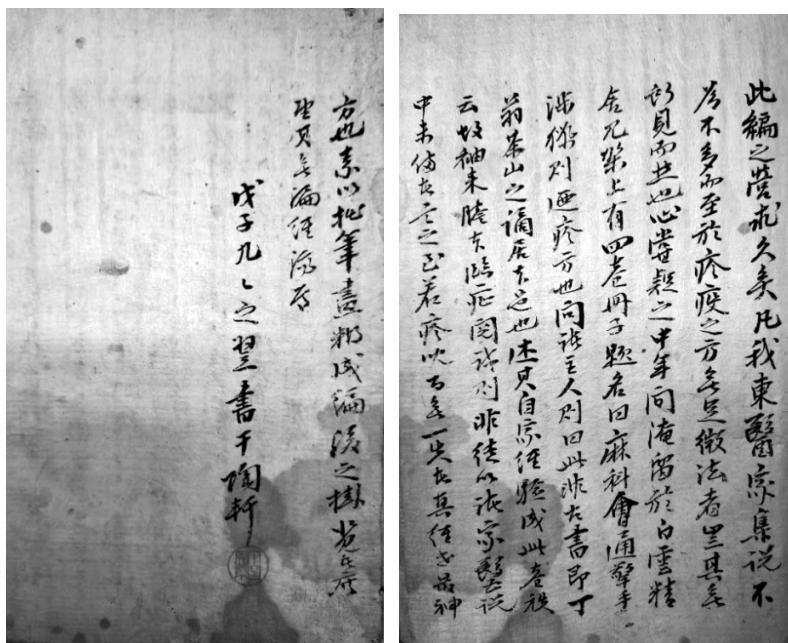
표기되었다. 글자 수는 10행 20자로 필사되었고, 책은 사침안정법으로 제책되었다. 조선시대 전통적인 제책 방식은 오침안정법인데 다산 필사본류는 고본稿本을 비롯하여 전사본傳寫本도 대개 사침안정법이다. 재단본의 분량은 1책은 겹장 74장, 2책은 겹장 56장, 3책은 71장, 4책은 겹장 89장이다.

[사진1] 재단본 『마과회통』의 춘책 표지



재단본 4책의 뒤쪽 내지의 글은 필사자가 『마과회통』을 필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내용이대[사진2]. 이에 따르면 필사자가 전남 강진의 백운정사에 머무르다, 정약용이 저술한 『마과회통』 4책을 발견하고 필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진2] 재단본 『마과회통』 제4책의 뒤 내지 글



이 책은 오랫동안 간절히 구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무릇 우리나라 의가들이 지은 책들이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진역마진의 처방에 이르러서는 정해진 확실한 방법이 없었다. 어찌 소견이 없어서 그러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중년 시절, 백운정사에 오래 머무르게 되었는데, 서가 위에서 『마과회통』이란 제목이 붙은 4권의 책을 보고, 공손하게 손을 대어 섭렵해 보니, 따로 추천할만한 진역 방서였다. 주인에게 물어보니, 그 책은 고서가 아니라 이 고을로 유배되었던 다산 정옹이 자신이 겪은 경험을 기

록한 책이라고 하였고, 이 책을 임상 진료와 독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들의 저서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손수 베끼었다고 했다. 발진이 난 아이가 이 치료법으로 완벽하게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 가장 신묘한 치료법일 것이다. 나는 서툰 붓으로 이 책을 정성껏 썼고, 나중에 널리 알릴 예정이다. 무릇 이를 기대하면서, 삼가 글을 끝맺는다.

무자년(1828년) 9월 9일의 다음날, 도현에서 쓰다.¹²⁾

글 말미의 무자년은 글의 내용으로 보아 1828년(순조 28)인데, 재단본이 정본보다 나중에 형성된 필사본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산은 강진 백운정사에 1812년(순조 12)에서야 방문하였고, 자이당自怡堂 이시헌李時憲(1803~1860)이 1812년보다 일찍 다산의 제자가 되었다 하여도, 1800년 『마과회통』 증보본이 완성된 이후일 것이기 때문이다. 백운동 4대 동주인 이덕휘李德輝(1759~1828)는 1828년 1월 21일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¹³⁾ 글에 언급된 백동동의 주인은 5대 동주인 이시헌이다. 이시헌은 제자로서 다산을 잘 알았던 인물이므로, 다산이 이 책을 썼다는 그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다산의 저작들은 조선시대에는 『이담속찬耳談續纂』을 제외하면 간행

12) “此編之營求久矣。凡我東醫家集從不爲不多，而至於疹疫之方，無定徵法者，豈其無所見而然也？心嘗疑之。中年間，淹留於白雲精舍 見架上，有四卷冊子題名，曰麻科會通 擎手涉獵，別薦疹方也。問諸主人則曰，冊非古書，即丁翁茶山之謫居本邑也，述其自家經驗成冊卷帙云，故袖來贈本，臨症閱教則非徒，以諸家醫從中未備者言之心。若疹兒百無一失者，真徑戾最神方也。素以拙筆畫精成編，後之掛覽。凡庶望其矣，偏經濟篤。戊子九、之翌，畫于陶軒。”

13) 이시헌은 원주이씨 병사공파에 속한다. 원주이씨 대종회, 『원주이씨대동보』 권8, 뿌리미디어정보, 2025, 81쪽.

되지 못하고 필사본으로만 전하였다. 노경희에 따르면 다산과 그의 제자 가문의 전승 고본들은 “최종 완성본이라기 보다는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형태의 사본”이었다. 여러 이본이 전하는 사례로는 『상서지원록尙書知遠錄』, 『경세유표經世遺表』, 『주역사전周易四箋』 등이 있다. 초기 원고본과 증보 원고본이 동시에 전승되는 것이 다산 저작에서는 희귀한 사례는 아니다.¹⁴⁾ 다산 저작은 다산과 그의 자녀, 제자들에 의하여 집단체제로 증보되었으므로, 증보 과정 속의 원고가 여러 이본의 형태로 전승되었다. 재단본 『마과회통』은 원주이씨가에 소장된 필사본을 2차 필사한 전사본에 해당된다.¹⁵⁾ 재단본의 저본이었던 원주이씨의 소장본도 교감 기록이 없는 점으로 볼 때, 고본이 아닌 전사본일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마과회통』은 1798년에 증보 작업이 한 차례 마무리되었고, 이후 증보 작업이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중이었으므로, 강진 유배기 제자인 이시현이 참여하였을 강학이나 저작의 증보수정 작업은 1798년 이전의 초기 필사본과 관련이 없다.

글을 쓴 장소로 기록된 도헌陶軒은 어디일까. 재단본 권14 말미에 기록된 「戊子九月二十二日, 刊陶山主人」의 ‘도산陶山’은 도헌과 관련되어 보인다. 그런데 도산이란 지명은 흔하지 않으며, 경북 안동의 도산 외에 필자는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글의 도산이 그곳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14) 노경희, 「다산 저술 ‘고본’의 성격과 자료 전승 현황」, 『다산학』 17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0, 147~160쪽; 노경희, 「다산 저술의 전승과 유통에 대한 서지학적 고찰: 다산가장의 고본에서 『여유당전서』에 이르기까지」, 『한국한문연구』 50, 한국한문학회, 2012, 177, 183~184쪽.

15) 노경희는 2010년 연구에서 다산 저작은 308종의 필사본이 전승되는데, 전사본이 아닌 고본은 27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노경희(2010), 앞의 논문, 140쪽.

재단본의 「인용제가성씨서목引用諸家姓氏書目」은 정본의 「초촬제가성씨서목抄撮諸家姓氏書目」에 해당한다. 둘의 내용은 유사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다.

먼저 수록 의가와 책의 차이가 있다. 「초촬제가성씨서목」은 61명, 63책(주석으로 기록된 3책을 더하면 66책)이 수록되었는데,¹⁶⁾ 「인용제가성씨서목」은 49명, 49책이 수록되었다(표1).¹⁷⁾ 재단본에 없는 15명의 의가와 책이 정본에 추가되었는데, 청대의서 『의종금감醫宗金鑑』, 『종두방種痘方』, 조선의서 『을미신전乙未新詮』, 『급유방及幼方』, 『광제비급廣濟秘笈』 등이다. 수록 의가가 늘어났기에 정본이 재단본보다 후기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인용 책 수가 늘어난 것만으로는 정본과 재단본의 형성 시기 선후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많은 책을 인용하여 내용을 쓴 후에 축약하면서 내용을 덜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마과회통』에서는 인용 문헌에 대하여 ‘~氏’라고 표기하여 정확한 인용 문헌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데 정망이의 『종두방種痘方』은 1799년 이기양李基讓이 의주에서 서울로 올 때 가지고 와서, 다산이 처음 보았고, 1800년 박제가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두 관련 책을 보여준 뒤에, 그 책과 함께 『마과회통』에 수록되었다. 즉 정본의 『마과회통보유』에 수록된 「종두요지」는 정망이의 『종두방』과 오겸의 『의종금감』 두 문헌의 내용을 반영하였다.¹⁸⁾ 따라서 『종두방』은 1800년 이후에야 증보본에 참고

16) 서봉덕은 63인의 성씨와 서목이라 했는데, 오류가 있다. 서봉덕(2009), 앞의 논문, 54쪽. 김호는 인용문헌을 63종으로 정확하게 계수하였다. 김호, 「이의순명의 길: 다산 정약용의 종두법 연구」, 『민족문화연구』 72,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16, 68쪽.

17) 표 내용 중 ‘()’은 주석으로 표기된 것이다.

18) 「종두설」에 관련 내용이 있는데, 「종두설」은 원문 중에 ‘丁卯 余在康津聞’이란 구절이 있어 1807년 이후의 글이다. 조성을, 『여유당집의 문헌학적 연구』, 해안, 2004, 253쪽. 김호는 정망이의 『종두방』이 별책으로 전하지 않고, 청대 의가 섭계葉桂의 『임증지남의안臨證指南醫案』에 수록되어 전했음을 밝혔다. 김호(2016), 앞의 논문, 71~74쪽.

될 수 있다. 종두법에 대한 다산의 관심을 참고할 때에, 종두 관련 내용을 빼고 축약하였을 가능성은 적으므로, 재단본이 정보보다 저술시기가 앞선 필사본으로 추정된다. 다만 1798년의 증보본과 연계시키기는 서문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표1〕 정본 「초찰제가성씨서목」과 재단본 「인용제가성씨서목」 전체 목록 비교

	「초찰」	「인용」	비고		「초찰」	「인용」	비고
1	장중경, 상한론	동일		34	만전, 세의심법	동일	
2	유수진, 원병식	유하간	서명 미기록	35	조엽, 두진의안	동일	
3	전중양, 소아진결	동일		36	황렴, 두진전서	동일	
4	양사영, 인재직지방	동일		37	공정현, 보도자향	공정현, 보도자향, 수세보원	서명 추가
5	이고, 동원십서	이고, 반 론채영	서명 다름	38	도신, 백대의종	서신 백대의종	서명 오류
6	장결고, 반론	장결고	서명 미기록	39	정신봉, 두진방	정신봉	서명 미기록
7	왕해장, 반론채영	왕호고, 탕액본초	서명 다름	40	만표, 제세양방	-	미기록
8	진문중, 소아방	진문중, 활신서	서명 다름	41	서이정, 의회	-	미기록
9	주굉, 남양활인서	동일		42	손일규, 두진심인	동일	
10	주진형, 국방발휘	주진형, 단계심법	서명 다름	43	(著, 적수현주)	동일	주석

11	위달재, 구선방	위역림, 득효방, 구선방	서명 추가	44	이시진, 본초강목	동일	
12	우단, 의학정전	동일		45	왕금당, 유과준승	동일	
13	방광, 단계심법부여	동일		46	목중순, 사진론	-	미기록
14	한무, 의통	동일		47	마지기, 마과휘편	마지기, 마진휘편	서명 다름
15	이천, 의학입문	동일		48	오학운, 두진백문	-	미기록
16	공신, 만병회춘	동일		49	적옥화, 두과석의	동일	
17	(又著, 고급의감)	동일	非주석	50	(著, 보적서)	-	미기록
18	오동원, 두진방	오동원	서명 미기록	51	주지암, 진과치법강	-	미기록
19	설기, 보영촬요	동일		52	섭상항, 치진대법	동일	
20	유방, 유유신서	유방, 보유신서	서명 다름	53	장개빈, 마진전	동일	
21	왕빈호, 유과촬영	동일		54	전겸, 의종금감	-	미기록
22	서요선, 수진소아방	동일		55	경일진, 송애전생서	-	미기록
23	구형, 전유심감	동일		56	맹개석, 활유심법	동일	
24	탕형, 영해보감	동일		57	황광희, 보적제이서	동일	
25	고무, 두진정종	동일		58	황보중, 마진방	-	미기록

26	왕석산, 두진이변	동일		59	연희요, 사진방	-	미기록
27	위직, 박애심감	동일		60	풍조금, 낭비결	-	미기록
28	이언문, 두진증치	이언문, 두진증치, 두진요결	서명 추가	61	정망이, 종두방	-	미기록
29	문인규, 팔십일론	동일		62	허준, 벽역신방	동일	
30	이실, 두진연원	동일		63	임서불, 임신방	-	미기록
31	옹중인, 금경록	동일		64	이현길, 을미신전	동일	
32	만국현, 두진심요	동일		65	조정준, 급유방	-	미기록
33	유동고, 두진후언	-	미기록	66	이경화, 광제비급	-	미기록

서명이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6개이다(표2). 대개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 『반론취영癡論萃英』을 이고의 책이라 하였다가 왕호고의 책으로, 유방劉昉의 『보유신서保幼新書』를 『유유신서幼幼新書』로 옳게 수정하는 등이 4례이다. 이러한 오류 수정 사례는 재단본이 정본보다 형성시기가 이를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외 『의종금감』의 저자 오검을 전점으로 기록한 오류는 재단본과 정본 둘 다에서 발견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재단본이 정본보다 먼저 형성된 필사본 계열로 추정된다. 12권본이 아니므로 초고본은 아니고, 서문이 없으므로 1798년의 증보본 이후도 아니다. 초고본과 1798년 증보본 사이의 필사본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1798년 증보본이 완성되기 전에도 과도기적인 형

(표2) 정본 「초찰제가성씨서목」과 재단본 「인용제가성씨서목」 서명이 다른 사례

	「초찰」	「인용」	내용
1	이고, 동원십서	이고, 반론채영	『반론채영』은 왕호고의 저작. 오류 수정함
2	왕해장, 반론채영	왕호고, 탕액본초	『반론채영』은 왕호고의 저작, 오류 수정. 인용문헌 바뀜
3	진문중, 소아방	진문중, 활신서	『小兒方(小兒病原方論)』가 맞음. 오류 수정
4	주진형, 국방발휘	주진형, 단계심법	인용문헌 바뀜
5	유방, 유유신서	유방, 보유신서	『유유신서幼幼新書』가 맞음. 오류 수정
6	도신, 백대의종	서신, 백대의종	‘서徐’가 맞고 ‘도涂’ 오류임. 정본이 오기임

태의 증보본이 있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이 가설을 위해서는 이시현이 증보 필사본이 아닌, 초기 필사본을 정리해서 전승시켜야 할 목적이 설명되어야 한다.

3. 재단본의 목차와 내용

재단본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표3). 재단본의 목록에는 「오견편품見篇」과 「마과회통보유麻科會通補遺」가 별도로 없지만, 본문 내용에 의하여 추가하였다. 재단본의 「합제편」의 목록은 본문을 보면 ‘권지십卷之十’으로, 목록에서는 ‘권지구卷之九’로 기록되었다. 또한 본문에서 「합제편」의 다른 항목들은 권수 기록이 없다. 그래서 목록을 쫓아 본문의

(표3) 재단본과 정본 목차 비교

재단본			정본		비고				
1	목록		1	서序	정본에만 있음				
	수권首卷	인언 引言		1.만씨쇄금부 萬氏碎金賦 -9.인용제가성씨서 목引用諸家姓氏書目	팔편총목제어八篇總目題語,섭구오 치진대법발攝久吾治疹大法跋,초찰제 가성씨서목抄撮諸家姓氏書目,수편 개목首編開目,응중인변의부翁仲仁辨 疑賦 외 10개 항목	정본에 항목 5개(좌에 기술) 추가			
	권지1	원증편 原證編		1.명시名始 -5.길흉吉凶	1.명위名爲 -8.일기	정본에 항목 3개(시령時令,약 계藥戒,맥도脈度) 추가, 1개(길흉) 삭제			
	권지2			6.일기日期 -10.형색形色	9.초열初熱 -17.금기	동일			
권지3	11.수진收疹 -15.금기禁忌								
2	권지3	인증편 因證編	2	인증편	1.한 -16.잡증	동일			
	권지4						1.한 -16.잡증		
	권지5						12.이질痢疾 -16.잡증雜症		
	권지6	변사편 辨似編	1.반진총론斑疹總論 -14.수두水痘	변사편	1.반진총론 -12.수두	정본에 항목 2개(양독발반陽毒 發斑, 음독발반陰毒發斑) 삭제			
권지7	1.두독痘毒 -13.두구토痘嘔吐								
3	권지8	자류편 資類編	3	자이편 資異編	1.두독열痘毒熱 -16.두회충,초록대과제 서회충증치鈔錄大科諸書 蝨蟲證治	정본, 편명 변경, 항목 2개 변 경(두심痘審→두허실痘虛實, 두복痘伏→두함痘陷), 2개 합함 (두독,두열→두독열), 5개(두의 痘醫, 두여痘餘, 두약痘藥, 두갈 痘渴, 두설리痘泄利.) 삭제, 2개 (부인痘婦人, 초록대과제서회 충증치) 추가			
							아속편 我俗篇	1.예해豫解 -9.잡설雜說	아속편
	권지9	오견편吾 見篇	1.고의古醫 -10.잡론雜論 몽수전夢叟傳, 진안일표疹案日表	4	오견편	2.속의俗醫 -10.잡론, 이몽수전李夢叟傳, 목록	정본에 진안일표疹案日表 삭제		
	권지9	목록, 1.승갈升葛 -4.황금黃芩	1.갑을甲乙 -6.자축子丑					항목명과 구성이 바뀌었음	
4	권지10	합제편 合劑篇	5	합제편	7.인묘寅卯 -18.실벽室壁	항목명과 구성이 바뀌었음			
	권지11						9.조중調中 -12.우황牛黃	19.규루奎婁 -20.胃昂	항목명과 구성이 바뀌었음
	권지12						13.양독陽毒 -16.소해蘇解		
	권지13						17.태을太乙		
	권지14	마과회통 보유	경악전서마진고景岳 全書麻疹考,쇄금부 중소인효방碎金賦中 所引效力,잡록雜錄	마과회통 보유	중두요지種痘要旨 등 5개 항목	항목과 내용이 전부 다름			

‘권지십’ 기록은 오류로 보았다.¹⁹⁾ 재단본과 정본은 14권과 6권 체제라는 차이 외에도 편명에 있어 「자류편資類編」과 「자이편資異編」의 차이가 있다. 참고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古 7671-28)은 10권으로 되어 있지만, 수록 내용 자체는 정본과 같다.

1802년(순조 2)에 정리자체철활자본으로 간행된 홍석주洪奭周의 『마방통휘麻方統彙』는 다산의 『마과회통』을 토대로 만들어진 책이다. 체제가 바뀌기는 했지만, 당시 『마과회통』의 항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마방통휘』에서는 정본 『마과회통』에 추가된 원증편의 「시령」, 「약계」, 「맥도」 항목이 있으며, 이름이 변경된 「두허실」도 있는 등, 재단본에서 정본 항목으로의 변화를 그대로 담고 있다. 다만 『마방통휘』에 「마과회통보유」는 미 수록되었다. 보유는 홍석주가 일부러 누락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원증편」에서 「합제편」까지의 체제와 항목이 1802년경에 이미 완성된 것은 분명하다. 정본에만 있는 「팔편총목제어八篇總目題語」에는 원증편부터 8편의 의미를 설명하였는데, 마지막 8번째 편인 「본초편」은 실제 목록이나 원문에는 누락되었다. 정본과 재단본 모두에 존재하지 않는 편으로, 미완 상태로 남았는지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²⁰⁾ 재단본과 정본의 내용이 일부가 같고, 내용도 다른 면이 있지만 7편이라는 체제는 같다. 7편 외의 「보유」는 필사본에 따라 있기도 없기도 하다.

김대원이 해제에서 밝혔듯이 재단본 「합제편」의 항목은 제1 승갈탕升

19) 재단본과 동일한 계열인 필자 소장본도 목록을 보면 재단본과 같다.

20) 정본보다 앞선 시기의 필사본인 재단본에는 「팔편총목제어」가 없고, 따라서 「본초편」에 대한 언급도 없다. 따라서 다산의 초고본 구상에는 「본초편」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葛湯, 제2 마황탕麻黃湯, 제5 시호탕柴胡湯 식으로 되어있다.²¹⁾ 이에 대하여 필자가 보충하여 설명하자면, 재단본에서는 대표적인 처방으로 항목명을 삼고, 유사한 처방들을 배속하였다. 그러나 정본에서는 항목을 제1 갑을甲乙, 제2 병정丙丁 식으로 천간지지와 28수를 활용하여 항목명을 구분하였다. 물론 재단본에서도 항목 안에서는 갑을, 병정 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본문에서 언급된 처방을 색인 용도로 찾아보기는 편했을 것이다. 다만 「합제편」만을 별도로 보면 재단본이 항목명을 보고 유사 처방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반면 의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닌 한, 정본에서는 어느 편에 무슨 처방이 있는지 전체를 보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다. 따라서 김대원이 지적했듯이 임상에서의 활용성은 재단본이 정본보다 더 크다. 처방은 특정 질환에 어느 처방 식이거라기보다는 환자의 상태에 병기에 따라 약물 가감과 변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본의 「합제편」은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 불편한 구성이다. 참고로 처방 수도 재단본에서는 351개였는데 증보 작업에서 416개로 늘어났다.²²⁾

김대원은 재단본 제3책에 수록된 「진안일표疹案日表」는 다산의 가족들이 앓았던 마진의 임상 기록을 기록한 것이라 하였고표4,²³⁾ 이 내용은 정본에는 없는 재단본 계열만의 독특한 부분이라 평하였다. 「진안일표」 말미에 '선인先人' 기록이 있어서, 글의 원래 저자는 정약용의 아버지 정재원丁載遠이다. 다산이 보기 쉽게 표로 만들기는 했지만, 다산을 글의 저자로 보기는 어렵다. 김대원의 설명처럼 「진안일표」는 정약용이

21) 다산학술재단, 앞의 책, 2012, 20쪽.

22) 다산학술재단, 앞의 책, 2012, 20쪽.

23) 다산학술재단, 앞의 책, 2012, 20쪽. 「진안일표」에서 진후 10일 이후는 원문에서는 표로 되어 있지 않은데, 본고에서는 표 형식으로 바꾸었다.

과약했던 마진의 이론을 실제 임상과 결부시켜 볼 수 있는 사례이다.²⁴⁾ 「진안일표」 내용 중, 중씨仲氏는 다산의 둘째형 정약전丁若銓을, 삼중씨三仲氏는 셋째형 정약중丁若鍾, 계씨季氏는 정약용 본인을 지칭하며 이들은 1758년, 1760년, 1762년생이므로 그들의 18세, 16세는 1775년(영조 51)이다. 따라서 「진안일표」는 1775년의 기록이다. 글 말미에 을미년의 일이라 했는데, 1775년이 을미년이다. 다산의 둘째형이 9월 10일, 마진이 처음 발병하여, 연달아 다른 형제들과 서모도 발병하였다. 이 때 몽수 이헌길李獻吉이 다산의 가족을 치료하였으므로, 이 의안은 몽수의 의안이다. 마진은 초열初熱(3일) - 출진出疹(3일) - 수진收疹(3일) - 진후疹後(9일)의 4단계로 진행된다. 정약용은 9월 18일, 초열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후 4일까지 시간의 경과가 맞는데, 서모는 9월 17일 초열이 시작되었는데, 출진 1일은 21일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0월 1일이다. 「진안일표」의 각 단계는 환자에 따라 질병 주기가 다름에도, 정약용 본인을 기준으로 계수한 셈이다. 「진안일표」는 의사, 환자, 진료 시기, 처방 및 경과가 잘 기록된 의안이다. 정본의 「이몽수전」은 다른 본문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진안일표」 말미에 밝힌 것처럼 정재원의 글을 바탕으로 표를 만들면서 같이 수록한 것이라면 전후 설명이 된다. 「진안일표」가 전부 누락되면서, 「몽수전」을 쓴 이유도 같이 누락되어, 정본에서는 구성이 매끄럽지 않게 되었다. 재단본의 구성과 기록을 통하여 왜 「몽수전」이 있는지가 설명이 된다. 이는 재단본이 정본보다 먼저 형성되었다는 근거가 된다.

24) 다산학술재단, 앞의 책, 2012, 20쪽.

〔표4〕「진안일표」의 내용

	구분	중씨 18세	삼중씨 16세	계씨 14세	서모庶母 22세
1	초열 1일	午刻氣微不平,夜寒戰發熱○九月十日	氣微不平 ○九月二十日	夕氣微不平 ○九月十八日	發熱已有蛔氣 ○九月十七日
2	초열 2일	痛熱不甚緊,升葛湯	朝惡寒發熱	初發熱升葛湯○夜有蛔,上回黃今湯	痛不劇夜不熱疹見而不出,升葛湯2貼
3	초열 3일	初咳嗽,夕疹出,升葛湯	痛勢輕升葛湯○夜有蛔,下回黃今湯	初咳嗽疹出,午後痛勢劇,升葛湯2貼	痛加前,升葛湯調磁末二錢入湯
4	출진 1일	痛夜劇,疹出畧腹痛,初,升葛湯,夜下回黃今湯	痛微疹出升葛湯入荊防○蛔動化蘆丸十二;粒上回黃今湯調兩末	疹出○曉衄血,夜又衄初朝升葛湯加麻黃○午蛔動上回黃今湯,化蘆丸六十三粒,烏銃葉一貼有病	痛不甚疹不透蛔動上回黃今湯調兩末,夜痛緊熱甚消毒飲○又蛔動衄血○十月一日
5	출진 2일	身烘熱疹出午衄血○朝下回黃今湯,夕上回黃今湯	升葛消毒飲,衄血吐蛔○蛔寒疹陷,化蘆丸百六十粒啄末三鍼,夕上蛔黃今湯調兩末而安,又烏銃葉	痛勢極疾盛下痢疹點,夕而不透四勿消毒飲2貼	朝消毒飲,午蛔動上回黃今湯調而末,又烏銃葉
6	출진 3일	午間頭面有收疹意○烘熱喘急,夜不寢上蛔黃今湯	消毒散,蛔動上蛔黃今湯調而末○泄瀉便蛔痰盛	泄痢疹疹透出四勿消毒飲○熱劇終不汗,夜白沸湯疾嗽轉甚	痘面疹出透肢體疹甚少升葛四物湯入麻黃二錢,紅花子飲四錢,消毒飲
7	수진 1일	疹漸收解毒白虎湯二貼熱少減,夕衄夜寢	疹漸收降痰盛上回黃今湯二貼調而末○夕腹痛認爲熱解毒四苓散,有痰嗽	泄痢頭面有收疹意升葛白虎湯○夜熱少減	痛緊身烘蛔動泄痢四勿消毒飲○便蛔
8	수진 2일	疹收熱減,加減解毒降火湯,安神丸二丸	疹收熱退身涼	疹收四肢先收熱漸減大便不下	肢體疹不透出痛緊○夕四物湯肢體疹出紅活
9	수진 3일	熱漸退嗽不止,瀉白散	無事	疹收夕泥便有疾嗽	熱甚痛劇疹出遍身,初四物湯,夕四勿消毒飲
10	진후 1일	瀉白散二貼○便蛔二	-	疾嗽下痢解毒湯	痘面收疹喉疾甚惡,初四物解毒湯,夕解毒白虎湯,痛如前

11	진후 2일	嗽不止桑枝飲,夕移 下房	解毒湯,午移下房○ 十月初一日	痢漸解毒導赤散二貼	疹收熱甚痛劇喉疾作 喘白沸湯,四物解毒 湯,膽胞三丸,移外舍
12	진후 3일	嗽稀喉痛肢節,痛解 毒湯,蔘蘇飲○痰吐 蛔化蘆丸七十粒	解毒湯	-	丑初流汗遍體熱退身 涼疹盡收○午後熱更 甚,夜又退
13	진후 4일	解毒湯,蔘飲	無事	馬氏苓芩湯2貼,痢稀 ○十月初一日	痛加○喉劇前解毒導 赤散,夜不寢安神丸
14	진후 5일	解毒湯	無事	馬氏苓芩湯	痛加前喉劇謔語驚 搐,導赤散調,辰砂 六一散
15	진후 6일	解毒湯	無事	解毒導赤散	痛不前夜不寢謔語 解毒導赤散調,辰砂 六一散
16	진후 7일	解毒湯	無事	下腹有浮氣	痛加前夜睡少謔語, 解毒導赤散,漆鷄
17	진후 8일	解毒湯	無事	辰砂四苓散六錢	初更衣,午後劇痰盛, 夜不寢,解毒導赤散
18	진후 9일	無事	灯下看書眼赤	辰砂四苓散九錢	午間睡熱熱減,解毒 導赤散,漆鷄
19	진후 10일 이후	疹後15日,有痢症解 毒導赤散○十六日, 流頭○二十五日,頰 面○三十四四日,關 格,加味理中湯,其翌 藿香正氣散二貼,其 後連用養胃湯五貼	-	疹後二十八日,服四 物湯,其後連用三貼	疹後十日,諸症少安, 加味理中湯二貼○ 十一日,四物湯,理中 湯○十二日同○十三 日,四物湯,其後連用 ○十六日,痰減利正 開鬱導氣湯二貼○其 後漆鷄,化蘆丸,理中 湯等藥,至二旬而後 安
20		이상 진역 외안 4건은 을미년에 우리 집안에서 겪었는데 아버님이 경험하여 기록 한 것이다. 이에 죽 적어서 표表와 전傳을 만드니, 한 편으로 아이에 자제로운 은혜 를 알았음이고, 한 편으로 경험 활용을 위한 대비였다. ²⁵⁾			

정본에서 「합제편」의 항목 이름이 바뀌고, 「진안일표」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는 『마과회통』 재단본과 정본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마과회통』은 마진과 유사한 감염성 발진 질환을 종합하여 정리한 책이다. 정본과 재단본을 거칠게 비교하자면 전자는 이론서로서의, 후자는 임상서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그러기에 「진안일표」처럼 임상 가치가 있는 의안이 수록되지 않고, 정망이 같은 청대 의가들의 최신 지견이 정본에 더 추가되게 된다. 종두법 관련되어서도 다산이 포천의 유의儒醫 이종인李種仁과 더불어 실천하여 임상경험이 있었던²⁶⁾ 인두법은 부록에도 자세히 실리지 않고, 최신 기법인 우두법 관련된 내용이 증보 작업에서 반영되었다. 실용 임상서라기보다는 임상과 이론 절충서로서의 성격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렇다면 재단본 계열이 보존된 이유도 임상 중심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앞서 추정한 것처럼 재단본이 정본보다 초기 필사본 계열이라면, 다산은 『마과회통』을 임상서가 아닌 이론서로서 방향성을 변화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정본도 재단본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이론서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할 뿐, 자체만으로 보면 임상서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기에 임상과 이론의 절충서 정도로 볼 수 있다.

「오견편·연차年次」에는 조선에서 마진이 유행했던 시기가 기록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재단본과 정본의 선후를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재단본의 ‘乾隆五十一年, 丙午, 今上十年’이 정본에서는 ‘乾隆五十一年, 丙午, 正宗十年’으로 바뀌었다[사진3].²⁷⁾ 재단본이 저술될 때만하더

25) 右疹案四件, 卽乙未吾家所驗, 而先人之所嘗記也. 茲開列, 作表傳, 便查檢, 一以識慈幼之恩, 一以備經驗之用.

26) 이종인은 자신의 인두 경험을 바탕으로 1817년에 『시종통편(時種通編)』을 목관 간행하였다.

27) 정본의 이미지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古朝68-73)이다.

라도 정조 재위 기간이었으므로 ‘금상_上’이었다. ‘금상10년’은 1786년을 말한다. 이후 증보본이 저술될 때에는 1800년 이후이기 때문에 정조의 사후이고, 묘호를 받아 ‘정종’으로 지칭되었다. 재단본도 1786년 이후에 저술된 점은 분명하다. 재단본과 초고본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으나, 저술 시기상 초고본의 원형을 상당 부분 그대로 계승하고 가능성이 크다.²⁸⁾ 그렇다면 1800년 이후의 증보본이 나온 시점에서도 원주이씨 가문에서 보존했던 이유가 분명해진다. 이미 한 차례 완성된 형태였고, 증보본과는 저술 의도가 다른 점이 있었기에, 증보본이 완성된 상태에서도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사진3] 재단본과 정본의 「연차」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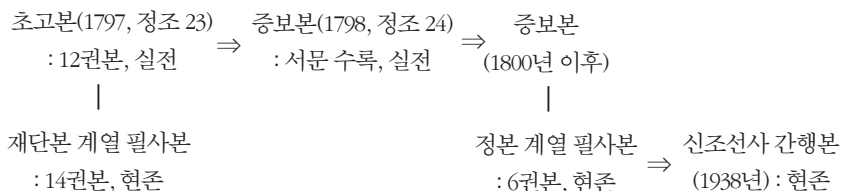
재단본을 처음 소개한 김대원은 「합제편」의 항목 이름이 바뀌고, 다른 필사본에 없는 「진안일표」의 존재를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대

28) 초고본은 12권본으로 알려져 있다. 재단본은 보유를 제외하면 13권본이다. 재단본이 바로 초고본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가능성일 뿐이며, 더 많은 추가 자료 발굴 이후로 논의를 미룬다.

원은 재단본을 “필사자가 임의로 편집하였다.”라고 낮게 평가하였다.²⁹⁾ 또한 “이론서인 『마과회통』을 임상서적으로 편집하는 것”이라고 보았다.³⁰⁾ 그러나 재단본이 정본보다 이른 시기의 필사본이므로 이러한 평가는 옳지 않다. 재단본은 초고본의 형태를 보존한 것이며, 임상서에서 좀 더 이론서 성격의 책으로 재편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반영하면 『마과회통』 필사본의 대략적인 계통은 다음과 같다[표4].

[표5] 『마과회통』 필사본 계통도



4. 재단본 계열의 기타 필사본

2009~2010년 사이, 다산학술재단의 다산 필사본 조사를 통하여 『마과회통』은 14종의 필사본이 알려졌다[표5].³¹⁾ 이후 임미정은 한치윤韓致淵

29) 다산학술재단, 앞의 책, 2012, 20쪽.

30) 다산학술재단, 앞의 책, 2012, 19~20쪽.

31) 노경희, 앞의 논문, 2012, 173쪽. 김대원의 해제에 따르면 주요 필사본은 국립중앙도서관 본 3종, 한국은행본, 교토대학京都大學 후지가와富士川본이 있다. 다산학술문화재단, 『정본 여유당전서 34』,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19~22쪽. 한국은행본과 부사천문고본은 ‘자연경실장自然經室藏’이란 기록이 있는데, 서유구徐有渠의 개인장서라는 뜻이다. 정본은 신조선사간본과 한국은행본을 주요 저본으로 삼았는데, 한국은행본이 부사천문고본보다 더욱 선본이기 때문이다. 현존 『마과회통』에는 전사본 외에 고본이라 부를 만한 필사본이 없다. 한국은행본은 기탁처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규장각 원문검색

[표6] 『마과회통』 주요 필사본 일람

	표제	책수	구성	소장처	청구기호	비고
1	麻科會通	10책	10권	국립중앙도서관	古7671-28	정본 계열
2	麻科會通	9책 缺	9권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68-73	정본 계열
3	麻科會通	9책 缺	9권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68-96	정본 계열
4	麻科會通	4책 缺	4권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원	고서(위당) 04	정본 계열
5	麻科會通	11책	10권	서울대규장각 (한국은행기탁도서)	한국은행 008664	정본 계열
6	麻科會通	11책	10권+보유	도쿄대학교	富士川文庫, マ/1 186946	정본 계열
7	麻科回通	3책	천지인 :10권+보유	한국학중앙연구원	K3-335	정본 계열
8	麻科會通	5책	10권	한국학중앙연구원	K3-336	정본 계열
9	麻科會通	4책	춘하추동 : 인언+14권	다산학술문화재단	-	재단본 계열
10	麻科會通	3책 缺	원리,별례 : 인언+1-3권, 8-9권, 마진기방	개인	-	재단본 계열
11	麻科會通	4책	원형리정 : 인언+13권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금곡OC.3I 마 16ㄴ v.1-4.	재단본 계열
12	麻科會通	4책	원형리정 : 인언+13권	개인	-	재단본 계열

서비스(<https://kyudb.snu.ac.kr>)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부사천문고본은 소장처인 교토대에서 제공하는 京都大学貴重資料デジタルアーカイブ(<https://mda.kulib.kyoto-u.ac.jp>)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1765-1814)의 구장본으로 추정되는 위당문고본을 새롭게 보고한 바 있다.³²⁾ 이 14종 중 재단본과 동일 계열 필사본은 전남대학교 소장본(이하 전남대본으로 간칭)뿐이다.³³⁾

전남대본은 이방식李邦植이 전남대에 기증한 자료이다. 책 크기가 22.8×21.7cm이며 13권 4책의 필사본이다. 각 책은 표제가 '마과회통麻科會通'이며, 표제 아래에 책수가 '원형리정元亨利貞'으로 표기되었다. 글자 수는 12행 22자로 필사되었고, 책은 사침안정법으로 제책되었다. 형책은 '정해년 8월 30일', 리책은 '정해년 8월 29일'이라는 필사 연도 기록이 있다. 고본의 형태는 아니며 전사본에 해당한다.³⁴⁾ 정해년은 1827년 내지 1887년으로 추정된다. 전남대본은 서문이 없고, 구성에 있어 재단본과 동일하다. 표지에 붙어있는 첩지에 기록된 청구기호는 '방고 31마16ㅈ'로 실제 청구기호와와는 다른데, 도서관의 과거 청구기호로 보인다. 재단본과 권수가 다른 것은 보유가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전남대본의 존재는 전라도 지역에 재단본 계열 필사본이 전승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다산재단의 2010년 조사 이후, 재단본 계열의 필사본 2종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2013년 대구의 고서 경매에 출품된 『마과회통』은 원형리정, 13권 4책본으로 현재 소장자는 알 수 없다.³⁵⁾ 글자 수는 10행 20자로 필사되었

32) 위당문고본은 신조선간본의 주요한 저본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미정,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 위당문고 자료의 성격과 가치(1) - 여유당집과 담헌서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9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1, 214-215쪽.

33) 오재근도 전남대본이 재단본과 같은 계열임을 보고하였다. 오재근, 앞의 논문, 2022, 144쪽.

34) 재단은 2007년에 전남대본의 소장 경위와 형태 등을 조사하여 기록을 남겼다. 이를 통하여 전남대본의 표지와 본문 이미지도 확인하였다.

35) 필자는 이 필사본의 실물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주요 부분을 이미지로만 살펴보았다.

고, 오침안정법으로 제책되었다. 각 책 첫 면 하단의 인장이 ‘백련白蓮’이며(사진4), 출판 당시 원주이씨가 소장본으로 소개되었다. 인장 외에 추가된 필사기 등은 없다. ‘백련’은 강진 백련사白蓮寺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필사본의 내용은 재단본과 동일하다. 다산 고본의 특징이 없는 전사본이다. 원주이씨가 소장본이므로 재단본의 저본과 관련이 있을 것인데, 저본 자체인지 다른 전사본인지는 불확실하다.

(사진4) 舊원주이씨장본의 ‘백련’ 인장



필자 소장본은 2025년 8월 필자가 서울에서 구입한 것으로, 원 소장자는 알 수 없다. 책 크기는 22×19.5cm이며, 글자 수는 10행 20자로 필사되었고, 오침안정법으로 제책되다. 원래의 5책 중에 3책만 남았는데, 원형리정 4책 중에 원리 2책만 남아있고, 별책 『마진비방麻疹秘方』이 추가되었다. 『마진비방』은 목록 겹장 1장과 본문 겹장 28장으로 구성되었다. ‘마진원위麻疹原委’ 등 3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참고문헌은 본문 중에 언급되었는데, 『의감醫鑑』(『동의보감』), 『입문入門』(『의학입문』),

『경약전서景岳全書』, 『목중순선생치진방繆仲淳先生治疹方』(『사진론』, 이상 4종은 『마과회통』 인용문헌이기도 하다.), 『비록祕錄』(저자 미상), 『소령미온素靈微蘊』(청淸 황원어黃元御 著)의 6종이다. 본문 중에 『마진비방』에는 없고, 『마과회통』에만 있는 항목, 예를 들어 번갈煩渴 조를 참조해라는 식의 문장이 있다. 즉 별책의 필사자가 『마과회통』 원문을 잘 알고 있었다. 별책을 제외하면 재단본, 전남대본과 동일한 내용이다. 다만 필사된 책의 분량 차이는 있다. 재단본에는 권3의 일부가 제2책에 있는 반면에 표31, 필자 소장본에는 권3 전체가 제 1책에 있다. 필자 소장본은 권 8로 제3책이 시작되는데, 재단본에서는 권7로 제3책이 시작된다. 별책 부분은 다른 『마과회통』 전사본에서도 없는 부분이며, 그 외 다른 마진 전문서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마진비방'이란 서명은 이헌길의 저작에도 활용되는데, 내용을 비교하면 관련이 없고, 『마진비방』 본문 중에도 몽수에 대한 설명이 없다.

재단본 계열이 내용상으로는 정본 계열보다 이른 시기에 형성되었음에도, 필사시기로 보면 상한선이 1827년, 1828년에 불과하여 정본 계열보다 더 늦게 필사되었다. 전라도 원주이씨가문을 중심으로 초기 계열의 필사본이 보존되었고, 오늘날까지 전승되었다. 현전하는 필사본 4종 가운데 최소 3종이 전라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재단본은 현전하는 4종의 재단본 계열 중 완질이면서 가장 선본이라는 가치가 있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다산학술문화재단 소장 『마과회통』 필사본의 서지적 특성과 내용 등을 기존 정본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재단본은 정본보다 초고본에 가까운 필사본이다. 인용문헌을 보자면, 정본은 재단본보다 인용문헌 수가 증가하였고, 인용문헌 오류도 수정되었다. 목차에서도 서문이 추가되고, 전체적으로 항목 수가 늘어났다. 결정적으로 재단본은 「오견편·연차」에는 조선에서 마진이 유행했던 시기가 기록되었는데 여기에 재단본과 정본의 선후를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진안일표」는 정약용의 아버지 정재원이 저술하였다. 『마과회통』의 증보 과정에서 「진안일표」가 누락되면서 구성도 매끄럽지 않게 되었다. 또한 「진안일표」는 재단본 계열에만 전승되는 내용으로 다산 가족이 1775년 겪었던 마진의 발병 시기, 전병 과정, 치료 처방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임상기록으로서의 가치도 있다.

재단본과 정본을 비교하면, 전자는 임상서로서 후자는 이론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즉 전자는 실용 임상서이고, 후자는 임상과 이론 절충서이다. 재단본에서 정본으로 증보되면서, 종두법을 비롯한 청대의 최신 지견이 반영되었으나, 이는 다산이 실증한 것은 아니었다. 본인이 경험했던 마진의 치험례인 「진안일표」가 누락되었고, 인두법에 대한 내용도 소개되지 못하였다. 「합제편」의 항목명도 실제 임상에 바로 적용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색인을 위한 목적이 더 크다.

현존하는 재단본 계열 필사본은 전라도 중심으로 전승되었다. 현존 재단본 계열은 총 4종으로 재단본, 전남대본, 구원주이씨장본, 필자소장본인데, 전라도를 중심으로 전승되었다. 백운정사는 특히 이 문헌의 전승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였다.

결론적으로 재단본은 현존 『마과회통』 중 가장 초고본에 가까운 필사본으로, 정약용의 초고본 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정약용은 1800년 이후의 증보 작업을 통하여, 임상서 뿐 아니라 이론서로서의 목

적을 분명하게 하였으며, 최신 지견을 끊임없이 보완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재단본 계열의 필사본 관련된 자료의 추가적인 발굴이 이어져 재단본과 초고본의 관계에 대하여 더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논문투고일 2026년 2월 20일, 심사확정일 2026년 4월 5일, 게재확정일 2026년 4월 10일)

참고문헌

원전

『麻科會通』

『麻方統彙』

논문

김호, 「이의순명의 길: 다산 정약용의 종두법 연구」, 『민족문화연구』 72,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16.

_____, 「마과회통의 원경, 보식의 정치」, 『다산학』 40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22.

노경희, 「다산 저술 ‘고본’의 성격과 자료 전승 현황」, 『다산학』 17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0.

_____, 「다산 저술의 전승과 유통에 대한 서지학적 고찰: 다산가장의 고본에서 『여유당전서』에 이르기까지」, 『한국한문연구』 50, 한국한문학회, 2012.

서봉덕, 「마과회통 오견편에 대한 제문제」, 『한국의사학회지』 21(2), 한국의사학회, 2008.

_____, 「마과회통의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신동원, 「조선후기 전염병에 대한 정약용의 대응 방식」, 『다산학』 40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22.

오재근, 「마진방에서 마과회통으로 - 정약용의 마진 의서 저술 과정」,

『다산학』 40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22.

임미정,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 위당문고 자료의 성격과 가치(1)
- 여유당집과 답헌서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9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1.

저서·단행본

다산학술문화재단, 『정본 여유당전서 34』,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미키 사카에 저, 오준호 역, 『조선의서지』, 문진, 2022.

정규영 저, 송재소 역, 『다산의 한평생』, 창비, 2014.

원주이씨 대종회, 『원주이씨대동보』, 뿌리미디어정보, 2025.

조성을, 『여유당집의 문헌학적 연구』, 혜안, 2004.

조성을, 『연보로 본 다산 정약용』, 지식산업사, 2016.

국문요약

『마과회통』은 정약용이 마진 즉 홍역에 대하여 저술한 전문의서이다. 본 연구는 다산학술문화재단 소장 『마과회통』 필사본의 서지적 특징과 내용 등을 정본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재단본은 정본보다 초고본에 가까운 필사본이다. 재단본의 「오견편·연차」에는 조선에서 마진이 유행했던 시기가 기록되었는데 여기에 재단본과 정본의 선후를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진안일표」는 정약용의 아버지 정재원이 저술한 내용이다. 『마과회통』의 증보 과정에서 「진일표」가 누락되면서 구성도 매끄럽지 않게 되었다.

재단본과 정본을 비교하자면 전자는 임상서로서 후자는 이론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즉 전자는 실용 임상서이고, 후자는 임상과 이론 절충서이다. 재단본에서 정본으로 증보되면서, 종두법을 비롯한 청대의 최신 지견이 반영되었으나, 이는 다산이 실증한 것은 아니었다.

현존하는 재단본 계열 필사본은 전라도 중심으로 전승되었다. 현존 재단본 계열은 총 4종으로 재단본, 전남대본, 구원주이씨장본, 필자소장본인데, 전라도를 중심으로 전승되었다. 백운정사는 특히 이 문헌의 전승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였다.

결론적으로 재단본은 현존 『마과회통』 중 가장 초고본에 가까운 필사본으로, 정약용의 초고본 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정약용은 1800년 이후의 증보 작업을 통하여, 임상서뿐 아니라 이론서로서의 목

적을 분명하게 하였으며, 최신 지견을 끊임없이 보완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 마과회통, 정약용, 백운정사, 원주이씨, 홍역.

340 _ 다산학 48호

Abstract

A Study on the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ontent of Manuscripts of the *Magwahoetong*(『麻科會通』), Housed in the Tasan Cultural Foundation

Park Hun-pyeong

Dept. of Medical humanities &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 Shin University

Magwahoetong(『麻科會通』) is a medical book written by Jeong Yak-yong on majin, or measles. This study compared the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the manuscripts of *Magwahoetong* housed at the Tasan Cultural Foundation(the foundation's collection) with those of the canonical version.

The foundation's collection is a manuscript closer to a draft than the original. *Ogyeonpyeon-Yeoncha* of the foundation's collection records a period when measles were popular in Joseon, providing evidence that confirms the order of the foundation's collection and the original.

Jinan-Ilpyo(Daily medical experience record) was written by Jeong

Yak-yong's father, Jeong Jae-won. With Jinan-Ilpyo omitted during the revision process of *Magwahoetong*, its composition became unstable.

Comparing the foundation's collection and the canonical version, the former is more of a clinical treatise, while the latter is more theoretical. In other words, the former is a practical clinical book, and the latter is a compromise between clinical practice and theory. As it was expanded from the foundation's collection to the final version, the latest ideas of the Qing Dynasty, including the smallpox method, were reflected, but this was not something that Tasan had actually verified.

The extant manuscripts of the foundation's collection series were transmitted primarily in Jeolla Province. There are four types of extant manuscripts: the foundation's collection, the Jeonnam University manuscript, the manuscript owned by the Wonju-Yi clan, and the manuscript owned by the author. These manuscripts were transmitted primarily in Jeolla Province. Baekunjeongsa Temple was a particularly important place in the transmission of this literature.

In conclusion, the foundation's collection is the closest to the original draft of the extant *Magwahoetong*, providing valuable insights into Jeong Yak-yong's initial conception of the manuscript. Through his extensive revisions after 1800, Jeong Yak-yong clearly defined the purpose not only as a clinical book but also as a theoretical text, demonstrating his continuous effort to supplement it with the latest knowledge.

Key Words | *Magwahoetong*, Jeong Yak-yong, Baekunjeongsa,
Wonju-Yi, measles.

